

한국인 출퇴근에 1시간 12분 사용



▲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12분, 이동 거리는 18.4km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통근자들이 출퇴근에 약 1시간 23분을 사용해 다른 지역 통근자보다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동아일보'는 통계청과 SK텔레콤이 이날 발표한 '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 통계 작성 결과'를 인용해 한국 통근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72.6분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출근 34.7분 퇴근 37.9분으로, 퇴근이 출근보다 3.2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통근자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83.2분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남권 63.7분 ●제주권 61.7분 ●동북권 60.6분 ●충청권 60.5분 ●호남권 59.8분 ●강원권 52.1분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의 통근 시간이 75.5분으로 가장 길었다. 통근 시간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8.4km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통근자가 20.4km로 가장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권 17.4km ●동남권 16.1km ●동북권 16.0km ●호남권 15.8km ●제주권 15.7km ●강원권 15.5km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통근 거리가 19.5km로 가장 길었고 30대 이하의 통근 거리가 16.5km로 가장 짧았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역대 최대

한국 체류 외국인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8,000명으로 늘었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익숙한 유학생을 한국 내 취업으로 연결하는 '육성형' 이민정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매일경제'가 통계청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보다 2만5,000명 증가한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은 학·석·박사,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외국어연수 학생을 포함한다.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7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5만2,000명), 우즈베키스탄(1만2,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유학생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6만2,000명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경기 2만9,000명, 충청권 2만6,000명, 호남권 2만명 순으로 거주 비중이 높았다.

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는 유학생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는 응답이 63.0%로 나타나 3년전보다 8.3%포인트,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겠다'는 비율도 35.4%로 3년전보다 2.7%포인트 늘었다.



▲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2023 국제하게대학 입학식에 참석한 각국 학생들이 응원 동작을 배우며 어깨동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도 이들 유학생을 한국 취업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뿌리산업인력양성대학'을 확대할 계획이고 유학생을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학생이 한국 대학 졸업 후 빈 일자리 핵심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 교육 이수 시 기능인력비자(E-7)를 발급하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열에 셋은 맞벌이·무자녀

지난해 한국의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딩크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딩크족'이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말한다.

지난 1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중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066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맞벌이·유자녀 부부(23만2,459쌍·28.5%),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531쌍·15.5%) 등의 순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딩크족은 2015년에는 21만2,733쌍

으로 18.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외벌이·유자녀 부부(40만9,014쌍·34.7%)와 맞벌이·유자녀 부부(29만2,826쌍·24.8%)보다 적었다.

그러나 딩크족 비중은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다.

맞벌이로 소득은 높지만, 자녀를 갖지 않은 부부가 증가하면서 초혼 신혼부부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433만원으로 외벌이(4994만원)의 1.7배였다.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